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8, Vol. 27, No. 1, 69-84

부부의 외적 속박감 및 상대적 지위 지각에 따른 분노표현과 결혼만족도*

권 정 혜† 이 소 영

고려대학교 부부상담연구소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된 상대적 지위와 외적 속박감이 우리나라 부부들의 분노경험와 분노표현 및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101쌍의 부부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부부들은 지각된 상대적 지위, 외적 속박감, 특성분노, 분노를 유발하는 스크립트에 대한 분노경험, 분노표현 및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였다. 연구 결과, 결혼만족도, 분노 조절 및 분노유발 스크립트를 읽은 후 유발된 분노에서는 남편과 아내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지각된 상대적 지위와 외적 속박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APIM 모델(자기-상대 상호의존 모델)을 사용하여 결혼만족도에 대한 지각된 상대적 지위, 외적 속박감, 분노표출, 분노억압 변인의 자기효과와 상대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인의 지각된 상대적 지위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상대효과), 외적 속박감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서 자신(자기효과) 뿐 아니라 배우자(상대효과)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남편의 분노표출과 부인의 분노억압이 자신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자기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모형검증 결과, 남편의 외적 속박감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의 분노표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외적 속박감 역시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자신의 분노억압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인의 지각된 상대적 지위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부, 결혼만족도, 상대적 지위, 외적 속박감, 분노표출, 분노억압

---

* 본 논문은 2006년도 고려대학교의 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권정혜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번지
Tel : 02) 3290-2067 / Fax : 02) 3290-2537 / E-mail : junghye@korea.ac.kr

www.kci.go.kr

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개인의 정신건강 뿐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분노는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가? Hendrix(1988)나 Parrott과 Parrott(1995) 등 부부 상담자들은 한결같이 분노가 부부관계를 좀먹고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신혼부부들의 행동을 실제 상황과 비슷한 실험실에서 관찰한 Gottma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분노가 높은 부부는 그 당시에는 결혼만족도가 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Gottman & Krokoff, 1989). 이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 Gottman의 연구팀은 다시 130쌍의 신혼부부를 6년간 추적조사하였는데, 여전히 분노가 이혼이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예측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Gottman, Coan, Carrere, & Swanson, 1998). 반면 긍정적인 정서는 결혼의 안정성이나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인 정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완화(de-escalation)하지 못하는 부부에게서는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부부관계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분노보다는 지속적인 분노경험 혹은 성격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적개심(hostility)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대부분 연구에서 적개심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orenz, Hraba, & Pechacova, 2001; Newton & Kiecolt-glaser, 1995; Rogge, Bradbury, & Hahlweg, Engl, & Thurmaier, 2006; Smith & Gallo, 1999), 최근 연구들에서는 적개심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Baron, Smith, Butner, Nealy-Moore, Hawkins와 Uchino(2007)는 다양한 연령대의 122쌍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특성분노와 적개적인 사고가 18개월 후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적개심과 분노는 결혼만족도와 공시적으로는 상관이 있었으나 오직 부인의 분노만이 부인과 남편 모두의 18개월 후 결혼만족도를 예측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Baron 등(2007)의 연구를 확장하여 특성분노와 함께 상태분노, 분노조절을 같이 측정하여 결혼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부부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각된 상대적 지위나 외적 속박감을 같이 연구하여 이들 변인들과 분노 및 결혼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대적 지위는 분노 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polsky, 1989, 1990; Ray & Sapolsky, 1992). 일반적으로 상대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상대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 비하여 분노나 공격행동을 표출하는데 더 자유로우며,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분노를 억압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cott, 1990). Allan과 Gilbert(2002)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 개인의 분노표현은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며, 이것이 우울증상과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상대방의 지위가 자신보다 높다고 지각하는 사람은 즉 자신의 상대적 지위가 낮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분노를 억압하는 경향이 더 높고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사람들이 분노를 표현할 때 분노를 일으킨 대상의 지위가 자신보다 높은지 혹은 낮은지에 따라 자신들의 분노표현을 조절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www.kci.go.kr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가 중시되고 있는 서구사회에서 상대적 지위가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유교의 영향을 받아 상하질서 중심의 인간관계가 중요한 한국사회에서는 상대적 지위가 분노표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석만(1996)은 권위적이고 의존적인 한국 문화의 특성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대인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권위적 문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위적 역할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데서 갈등과 마찰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자녀는 부모로부터, 부하는 상사로부터,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과중하고 부당한 지시와 요구에 순종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한국문화의 특성들은 점차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서구의 영향을 받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위계를 중심으로 한 문화에서 부부중심의 문화로 변화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가부장적인 태도는 그 강도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리 문화 속에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부부관계는 서구의 수평적인 부부관계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부부간에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지각하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분노나 억울함 같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부부들에게서 부인이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지각하는지, 또 상대적 지위가 부정적 감정의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부부 간 지위를 살펴본 연구로 최규련(2001)은 가사분담, 가정 내의 의사결정, 농사일 의사결정, 재산명의 정도 등을 통합하여 농촌 여성들의 종합적 지위 수준을 검토하여 부부의 지위 수준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농촌 거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상대적 지위 지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지각된 상대적 지위와 함께 외적 속박감은 부정적 정서 표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ilbert & Allan, 1998). 외적 속박감이란 현재의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으나 그럴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대두되었다(Dixon, 1998). 즉, 관계에서 속박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나 관계 내에 종속되어 있다고 판단하거나 굴욕감을 느끼고, 결국 우울감이나 무망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Gilbert & Allan, 1998). 부부관계는 회사를 그만두어 상사와 부하 사이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즉,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관여 수준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관계 내에서 속박감을 느낄 여지가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더구나 부부 내에서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상대적 지위가 배우자보다 더 낮다고 지각한다면 분노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고 해소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는 결국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배우자의 지각된 상대적 지위나 외적 속박감이 부부의 분노경험이나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부부의 분노표현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매

www.kci.go.kr

우 필요한 상태이다. 단지 Chon 등(2004)의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을 앓고 있는 환자의 부부를 대상으로 분노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관상동맥 환자의 분노표출은 배우자의 낮은 결혼만족도를 예측하였으며, 배우자의 분노억압은 자신의 낮은 결혼만족도를 예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부부들의 지각된 상대적 지위 및 외적 속박감에 대한 인지적 평가, 분노경험 및 표현, 결혼만족도에 있어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결혼만족도와 이들 변인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남편의 지각된 상대적 지위는 부인에 비해 높을 것이며, 외적 속박감은 낮을 것이다; 2) 지각된 상대적 지위가 낮고 외적 속박감이 높을수록 분노억압 수준이 높고, 분노표출 수준이 낮을 것이다; 3) 지각된 상대적 지위가 낮고 외적 속박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배우자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때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배우자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활용하여 각 배우자의 자기효과와 상대효과를 고려하여 이들 각 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06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모집하였으며, 참여자들 모두 연구 참여와 자료사용에 대한 설명을 읽고 확인하였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 및 자료사용에 동의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부부 101쌍이었으며, '결혼한 상태' 외에 특별한 제외조건은 없었다. 부부 중 한쪽 배우자만이 연구에 참여한 6명의 자료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남편의 평균연령은 43.38세(표준편차 8.53세), 부인의 평균연령은 40.63세(표준편차 8.16세)였다. 부부의 평균 결혼기간은 14.42년(표준편차 9.65년)이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사회적 비교 척도(Social Comparison Scale)

사회적 비교 척도는 개인의 상대적 지위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Allen과 Gilbert(1992)가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를 위하여 임상심리전문가 2인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비교 척도는 총 11문항이며, 10점 척도 상에서 양극의 반대개념(예를 들어, 열등한-우월한)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남편과 아내 각각 .91과 .89이었다.

외적 속박척도(The External Entrapment Scale)

외적 속박척도는 외적 상황에 의해 속박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Gilbert와 Allan(1998)이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하여 임상심리전문가 2인이 국내 부부에게 적합하도록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이며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원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임상집단과 일반집단 모두에서

www.kci.go.kr

표 1. 부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편n (%)	아내n (%)
부부 개별 특성	교육수준	초졸	1 (1.0)	2 (2.0)
		중졸	2 (2.0)	-
		고졸	13 (12.9)	27 (26.7)
		전문대졸	3 (3.0)	10 (9.9)
		대졸	52 (51.5)	41 (40.6)
		대졸이상	30 (29.73)	19 (18.8)
		결측치	-	2 (2.0)
	직업	전문직	37 (36.6)	25 (24.8)
		관리직	8 (7.9)	1 (1.0)
		사무직	25 (24.8)	5 (5.0)
		판매서비스직	16 (15.8)	8 (7.9)
		생산직	1 (1.0)	3 (3.0)
		무직	2 (2.0)	30 (29.7)
		기타	12 (11.9)	26 (25.7)
		결측치	-	3 (3.0)
부부 공동 특성	부부・자녀 외 동거인	시아버지		4 (4.0)
		시어머니		7 (6.9)
		장인	2 (2.0)	
		장모	4 (4.0)	
		시누이		2 (2.0)
		처남・처형	1 (1.0)	
	자녀수	없음	15 (14.9)	
		1명	19 (18.8)	
		2명	59 (58.4)	
		3명 이상	8 (7.9)	
	경제수준	상	4 (4.0)	
		중상	20 (19.8)	
		중	57 (56.4)	
		중하	14 (13.9)	
		하	6 (5.9)	
	가정 월수입	100만원 이하	2 (2.0)	
		100～299만원	22 (21.8)	
		300～399만원	26 (25.7)	
		400～499만원	16 (15.8)	
		500～999만원	30 (29.7)	
		1000만원 이상	5 (5.0)	

www.kci.go.kr

.80 이상이었다(Gilbert & Allan, 1998).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남편과 아내 각각 .92와 .86이었다.

상태-특성 분노 표현 검사(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상태분노와 특성 분노, 분노표현을 평가하기 위하여 Spielberger(1988)가 개발한 척도를 전겸구(1999)가 타당화한 한국판 STAXI를 사용하였다. STAXI는 총 44문항이며, '전혀 아니다'에서 '아주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전체 문항은 상태분노, 특성분노 하위척도와 분노표현을 나타내는 분노억압(anger-in), 분노표출(anger-out), 분노조절(anger-control)의 하위척도로 총 5개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태분노의 내적 일치도는 남편과 아내 각각 .82와 .87, 특성분노의 내적 일치도는 .86과 .71이었으며, 분노표현을 나타내는 소척도 중 분노억압은 남편과 아내 각각 .72와 .76, 분노표출은 .79와 .29, 분노조절은 .84와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내자료에서의 분노표출의 내적 일치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

부부의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nyder(1997)가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Revised(MSI-R)의 우리말 번역판인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 권정혜와 채규만, 1998)를 사용하였다. K-MSI는 총 150 문항으로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 분위기를 말해주는 지표인 전반적 불만족 척도(GDS) 2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결혼만족도를 지칭할 때 척도 이름을 반영하여 결혼불만족으로 기술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남편과 아내 각각 .88과 .89이었다.

분노유발 스크립트 평가

연구 참여자들은 부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담은 분노유발 스크립트를 읽었다. 스크립트를 읽은 후 부부 간에 이런 일화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부부 간에 일어나는 상황과 얼마나 유사한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얼마나 화가 날 것인지를 10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노유발 스크립트 구성

Allan과 Gilbert(2002)의 연구결과,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상대적 지위가 달라지는 분노유발 스크립트를 사용했을 때, 자신의 상대적 지위가 낮을 경우에 분노표현과 우울증상이 많아졌다. 본 연구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 내에서 지각되는 상대적 지위에 따라 분노표현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분노유발 스크립트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노유발 스크립트를 읽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에 대해 평가한 유발된 분노 점수(10점 리커트 척도)는 남편이 6.30(SD=2.90), 부인이 7.21(SD=2.46)로 나타나, 제시된 각본 상황에서 분노가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표본 t검증(one sample t-test)을 실시했을 때, 각본 제시 이후 측정한 상태분노 척도에서도 STAXI 표준화 논문에서 제시된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편 t=11.16, p<.001; 부인 t=9.66, p<.001).

www.kci.go.kr

분노 스크립트의 예

다음은 당신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을 하기로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 매우 중요한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퇴근 후 밖에서 배우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장소로 가고 있는데 10분 정도 늦을 것 같다며 배우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알았다고 한 후 약속장소에서 기다리는데, 30분이 넘도록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십분 간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도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더니, 한 시간 가량 후에는 가고 있는 중이라며 특별한 설명도 없이 얼른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결국 배우자는 한 시간 반이 넘은 후에야 약속 장소에 도착하였고, 너무 늦어 중요한 부부동반 모임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연구절차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에 대한 설명을 읽고 연구 참여 및 자료사용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으며, 질문지에서 개인 및 부부변인에 대한 인적 사항, 사회적 비교 척도, 외적 속박 척도, 특성 분노 척도에 대한 설문에 응하였다. 이후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담은 분노유발 스크립트를 읽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분노유발 스크립트를 읽은 후 부부 간에 이런 일화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부부 간에 일어나는 상황과 얼마나 유사한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얼마나 화가 날 것인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후에 분노 유발 스크립트에 대한 반응으로 상태분노 척도, 분노표현 척도를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결혼만족도 척도를 시행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남편과 아내 점수의 차이검증,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결혼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모델을 제시하였다. 부부를 연구하는데 있어 남편과 아내의 자료를 따로 사용하는 것은 독립적이지 않은 자료들을 독립적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설명할 때 남편과 아내의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구성하였다. 즉 남편과 아내의 자기효과(actor effect) 및 상대효과(partner effect)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부부의 상호의존성 효과를 알아보았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3.0과 AMOS 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본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로 알려진 추정오차의 평균(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비표준 적합지수(Tucker-Lewis Index: TLI)와,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은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함께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며, RMSEA는 .05이하면 좋은 적합도, .08이하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면 보통의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홍세희, 2000).

www.kci.go.kr

연구결과

남편과 아내 변인 간 차이분석

각 변인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차이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표 2). 지각된 상대적 지위와 외적 속박감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서 남편과 아내 간에 차이가 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배우자와의 관계 내에서의 지각된 상대적 지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1.14, ns), 외적 속박감에서도 부부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26, ns).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지각된 상대적 지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남편과 부인의 상대적 지위 각각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인의 경우 지각된 상대적 지위와 유의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남편의 경우에는 자녀수가 많을수록(r=.22, p<.05), 경제수준이 높을수록(r=-.28, p<.01) 자신의 상대적 지위를 높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유발 스크립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빈도(이런 상황이 결혼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와 상황유사성(이런 상황이 당신의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질문에서는 남편과 아내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발분노(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에서는 부인이 남편에 비해 유의하게 더 많이 화가 난다고

표 2. 각 변인에 대한 부부간 차이

	남편M (SD)	부인M (SD)	t
인지적 평가			
상대적 지위	68.21 (13.12)	66.09 (12.58)	1.14
외적 속박	19.11 (10.27)	21.26 (13.21)	-1.26
스크립트 평가(1～10)			
빈도	2.69 (2.10)	2.36 (2.04)	1.10
상황유사성	2.62 (1.87)	2.41 (2.20)	.70
유발분노	6.53 (2.81)	7.35 (2.48)	-2.19*
STAXI			
특성분노	20.08 (4.33)	19.51 (4.77)	.90
상태분노	17.17 (4.21)	18.28 (4.87)	-1.70
분노표출	14.47 (3.07)	15.25 (4.08)	-1.53
분노억압	16.78 (3.48)	16.91 (3.44)	- .25
분노조절	19.44 (3.82)	17.78 (4.17)	2.89**
결혼불만족	4.37 (4.42)	6.00 (5.70)	-2.22*

*p<.05. **p<.01.

www.kci.go.kr

보고하였다(t=-2.19, p<.05).

한편 상태분노에서는 부인의 상태분노가 남편보다 높은 경향은 보이고 있었으나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t=-1.70, p<.09), 특성분노(t=.90, *ns*)와 분노표현(분노표출, t=-1.53, *ns;* 분노억압, t=-.25, *ns*)에서도 남편과 아내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분노조절 변인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편이 분노를 적절히 통제하고 조절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89, p<.05). 결혼불만족 정도에 있어서는 부인이 남편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t=-2.22, p<.05), 결혼생활에 대한 부인의 불만족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남편의 결혼불만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남편 자신의 변인은 외적 속박감(r=.57, p<.01), 특성분노(r=.25, p<.05), 상태분노(r=.22, p<.05), 분노표출(r=.30, 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결혼불만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부인의 변인은 부인의 지각된 상대지위(r=-.21, p<.05), 외적 속박감(r=.42, p<.01), 부인의 결혼불만족(r=.66, p<.01)이었다.

부인의 결혼불만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부인 자신의 변인은 자신의 외적 속박감(r=.52, p<.01), 분노억압(r=.22, p<.01)이었다. 또한 부인의 결혼불만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남편의 변인은 남편의 외적 속박감(r=.38, p<.01)과 남편의 결혼불만족(r=.66, p<.01)이었다.

각 변인들의 자기효과와 상대효과

결혼불만족에 대한 지각된 상대적 지위, 외적 속박감, 분노표출, 분노억압 변인의 자기효과와 상대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그 결과, 지각된 상대적 지위 변인은 부인의 상대 지위만이 남편의 결혼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21, p<.05; 상대효과). 이에 비해 부인의 외적 속박감은 자신의 결혼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β=.44, p<.001; 자기효과) 남편의 결혼불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β=.26, p<.01; 상대효과). 남편의 외적 속박감 역시 자신과 부인의 결혼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과(β=.51, p<.001)와 상대효과(β=.29, p<.01)를 모두 보이고 있었다. 또한 남편의 분노표출(β=.30, p<.01)과 부인의 분노억압(β=.24, p<.05) 변인은 자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불만족에 대한 모형검증

이론적 가설 및 위의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남편과 아내의 결혼불만족에 대한 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TLI=1.11, CFI=1.00, RMSEA=.00). 하지만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남편의 외적 속박감이 높을수록 남편의 결혼불만족과 분노표출 경향이 높았다. 남편의 분노표출이 높을수록 남편의 결혼불만족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는 있었지만,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남편의 결혼불만족은 부인의 결혼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남편의 외적 속박감은 남편의 결혼불만족을 매개로 하여 부인의 결혼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인의 외적 속박감은 부인의 결혼불만족에 직접 영향을 주며, 부인의 분노억압을 통해

www.kci.go.kr

표 3. 부인과 남편의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남편								부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남편															
1. 상대지위	-														
2. 외적속박	-.26*	-													
3. 특성분노	-.05	.16	-												
4. 상태분노	.01	.23*	.50**	-											
5. 분노표출	-.06	.23*	.60**	.71**	-										
6. 분노억압	-.20	.11	.07	.23*	.19	-									
7. 분노조절	.03	-.21*	-.42**	-.29**	-.31**	.27**	-								
8. 결혼불만족	-.15	.57**	.25*	.22*	.30**	.04	-.17	-							
부인															
1. 상대지위	.21*	-.10	-.18	-.07	-.07	-.00	-.00	-.21*	-						
2. 외적속박	.04	.32**	.17	.12	.17	-.17	-.16	.42**	.04	-					
3. 특성분노	-.10	.02	.21*	.03	.02	.02	-.04	.05	-.03	.06	-				
4. 상태분노	.07	-.06	.12	.22*	.04	-.02	.07	-.09	.21*	.05	.36**	-			
5. 분노표출	-.13	.00	-.02	-.00	.02	.03	.12	-.06	-.05	-.13	.22*	.30**	-		
6. 분노억압	.04	.04	.09	.19	.09	.25*	.09	.01	.10	.25*	.10	.33**	.03	-	
7. 분노조절	.03	-.03	-.01	.02	.03	.12	.04	.01	.13	.15	-.29**	-.28**	-.35**	.35**	-
8. 결혼불만족	.02	.38**	.08	.14	.10	.03	-.03	.66**	-.06	.52**	-.08	.06	-.13	.22**	.18

*p<.05. **p<.01.

표 4. 결혼불만족에 대한 각 변인의 자기효과와 상대효과

	외적 속박감		상대적 지위		분노표출		분노억압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자기효과	.44***	.51***	-.08	-.10	-.13	.30**	.24*	.04
상대효과	.26**	.29**	-.21*	.03	-.06	.10	.01	-.02

주. 수치는 β 값임.

*p<.05. **p<.01. ***p<.001.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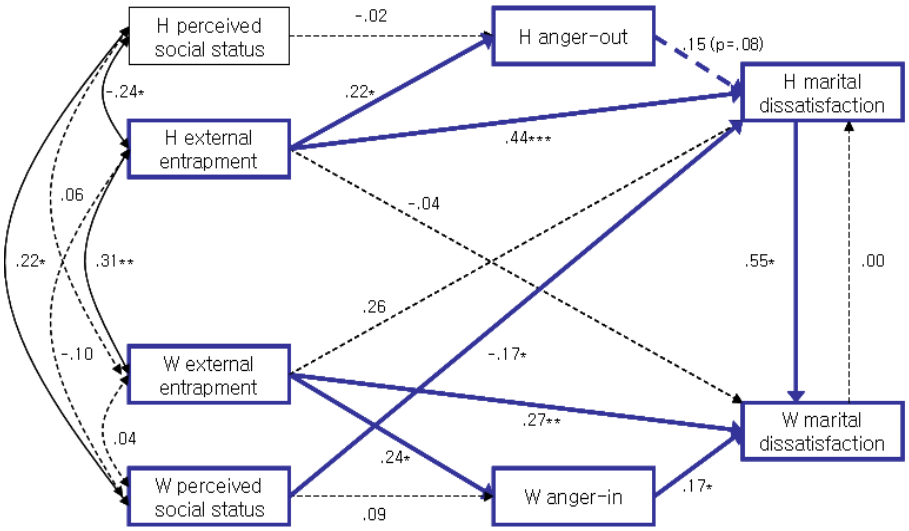

그림 1. 모형의 적합도 검증

*p<.05. **p<.01. ***p<.001.

주. H는 남편, W는 아내 변인임; 실선은 유의한 경로이며,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표 5.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신뢰구간)
초기모형	5.72	9	.77	1.11	1.00	.00 (.00～.06)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부인의 상대지위가 높을수록 남편의 결혼불만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부부의 지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부부의 사회적 지위가 가정 내의 지위도 결정한다는 가정 하에 직업, 교육수준 등을 측정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전통을 유지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에서의 지위나 교육수준이 반드시 가정 내의 지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각각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상대적 지위 및 외적 속박감을 측정하였으며, 이것이 분노표현과 어떠한 관련을 맺으면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상대적 지위와 외적 속박감에서 부부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두 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가설 1은 기각되었다. 현재 한국 부부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지위가 배우자와 동등하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 가부장적인 전통이 이어져왔음에도 불구하

www.kci.go.kr

고 부인이 남편보다 더 결혼관계 내에서 속박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부부들의 관계가 위계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상당히 변화했음을 말해주며,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관계유지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여성학적인 관점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와 상대적 지위를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기는 했지만 농촌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최규련(2001)의 연구에서는 여전히 남편과 아내의 지위 수준이 차이가 났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지역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전반적인 분노표현에서도 남편과 부인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에서는 남편과 부인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분노조절만이 남편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 2와 3은 외적 속박감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는데, 부인의 경우 외적 속박감이 높을수록 분노억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 외적 속박감이 높을수록 분노표출은 적어질 것이라는 가설과는 달리 오히려 분노표출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매우 흥미있는 결과로서 남편과 부인이 똑같이 부부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하더라도 그 나타나는 반응은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남편과 아내 모두에서, 외적 속박감이 높을수록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불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외적 속박감을 지각할 때 그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외적 속박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는 일방향적인 관계라기보다 쌍방향적일 가능성이 높다. 외적 속박감이 높으면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고, 결혼만족도가 낮아질 때 외적 속박감을 더 느끼는 순환적인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결과는 부부관계가 선택적이고 자유로운 관계가 아니고 외적으로 속박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배우자의 인지적 평가를 변화시킴으로써 결혼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자기 자신의 변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변인들에 따라서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결혼만족도에 대해서 외적 속박감, 지각된 상대적 지위, 분노표출, 분노억압 변인의 자기효과와 상대효과를 알아본 결과, 외적 속박감은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결혼불만족(자기효과)과 배우자의 결혼불만족(상대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각된 상대적 지위의 경우 부인의 상대적 지위만이 남편의 결혼불만족(상대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외적 속박감에 비해 상대적 지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추후연구를 통해 부인이 부부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지각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낮추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분노경험과 관련해서는 남편의 분노표출과 부인의 분노억압만이 자신의 결혼불만족(자기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표출이 상대효과를 지니며 분노억압이 자기효과를 지닌다는 Chon 등(2004)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대상은 일반 성인 부부이며, Chon 등(2004)의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을 앓고 있는 환자 부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앞으로

www.kci.go.kr

우리나라 부부들을 대상으로 분노경험과 분노표현 방식이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예측적 연구를 통해 분노경험과 분노표현방식이 결혼만족도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상대적 지위와 외적 속박감이 분노표현 방식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결혼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의 결혼불만족에 대한 설명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모든 적합도 지수는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TLI=1.11, CFI=1.00, RMSEA=.00),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자료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을 살펴보면, 남편의 외적 속박감은 남편의 결혼불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남편의 분노표출을 매개로 하여 결혼불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외적 속박감에서 분노표출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였지만, 분노표출에서 결혼불만족으로 가는 경로는 경향성만을 보이고 있을 뿐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β=.15, p=.08). 또한 부인의 외적 속박감은 부인의 결혼불만족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부인의 분노 억압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부인의 결혼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부인의 지각된 상대지위는 남편의 결혼불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부인의 지각된 상대지위가 낮을수록 남편의 결혼불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들의 결혼불만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적 속박감과 더불어 분노표현 방식을 다루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성별에 따라 분노표현 방식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해 보면, 부부관계 내에서 지각되는 상대적 지위보다는 외적 속박감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이며, 남편의 경우에는 분노표출이, 부인의 경우에는 분노억압이 자신의 결혼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드러났다. 다만 부인의 지각된 상대지위는 남편의 결혼불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남편의 결혼불만족은 부인의 결혼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간접적으로는 남편의 외적 속박감과 분노표출 또한 부인의 결혼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으로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지각된 상대적 지위 및 분노표현 방식을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활용하여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를 지니며, 분노표현 외에 기존 연구들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부부 간의 지각된 상대적 지위와 결혼관계에서의 외적 속박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설명 모형을 바탕으로 앞으로 부부의 결혼만족도 증진을 위한 접근법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충분한 사례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더 많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보아야 하며, 나아가 종단적 자료를 얻어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통합적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권석만 (1996). 임상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적 연구: 정신병리에 나타난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특성. 한국심리학회 창립 50주년 동계 연구세미나, 105-133.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0(1), 65-83.

이영숙(1990). 부부간의 지위부조화와 갈등해결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49-67.

최규련(2001). 한국 농촌여성의 성역할태도, 부부간 지위수준 및 지위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53-72.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Allan, S. & Gilbert, P. (2002). Anger and anger expression in relation to perceptions of social rank, entrapment and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 551-565.

Baron, K. G., Smith, T. W., Butner, J., Nealey-Moore, J., Hawkins, M. W., & Uchino, B. N. (2007). Hostility, anger, and marital adjustment: Concurrent and prospective associations with psychosocial vulnerability.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0(1), 1-10.

Chon, K. K., Smith, T. W., & Kim, Y. J. (2004). Anger, marital satisfaction, and coronary heart disease.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539-554.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2.

Dixon, A. K. (1998). Ethological strategies for defence in animals and humans: their role in some psychiatric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1,* 417-446.

Gilbert, P. & Allan, S. (1998). The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arrested flight) in depression: an exploration of an evolutionary view. *Psychological Medicine, 28,* 585-598.

Gilbert, P., Gilbert, J., Irons, C. (2004). Life event, entrapments and arrested anger in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79,* 149-160.

Gottman, J. M., Coan, J., Carrere, S., & Swanson C. (1998). Predicting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from newlywed interac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 5-22.

Gottman, J. M., & Krokoff, L. J. (1989). The relaionship between marital inter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7-52.

Hendrix, H. (1988). *Getting the love you want: A guide for couples*. New York: Henry Holt & Co.

Johnson, M. D., Cohan, C. L., Davila, J., Lawrence, E., Rogge, R. D., Karney, B. R., Sullivan, K. T., & Bradbury, T. N. (2005). Problem-solving skills and affective expressions as predictors of changer in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www.kci.go.kr

Clinical Psychology, 73(1), 15-27.

Kellner, Hernandez, & Pathak, D. (1992). Self -rated inhibited anger, somatization and depression.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57,* 102-107.

Lorenz, F. O., Hraba, J., & Pechacova, Z. (2001). Effects of spouse support and hostility on trajectories of Czech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1068-1082.

Newton, T. L., & Kiecolt-Glaser, J. K. (1995). Hostility and erosion of marital quality during early marriage. *Journal of Behavioral Medecine, 18,* 601-619.

Parrott, L., & Parrott, L. (1995). *Becoming soul mates: Cultivating spiritual intimacy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Ray, J. C., & Sapolsky, R. M. (1992). Styles of social behavior and their endocrine correlates among high-ranking wild baboons. *American Journal of Primatology, 28,* 231-250.

Rogge, R. D., Bradbury, T. N., Halweg, K., Engl, J., & Thurmaier, F. (2006). Predicting marital distress and dissolution: Refining the two-factor hypothe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1), 156-159.

Sanford, K. (2005). Attributions and anger in early marriage: wives are event-dependent and husband are schematic.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180-188.

Sapolsky, R. M. (1989). Hypercortisolism among socially subordinate wild baboons originates at the CNS leve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6,* 1047-1051.

Sapolsky, R. M. (1990). Adrenocortical function, social rank and personality among wild baboons. *Biological Psychiatry*, *28,* 862-878.

Schumacher, J. A. & Leonard, K. E. (2005). Husbands' and wives' marital adjustment, verbal aggression, and physical aggression as longitudinal predictors of physical aggression in early marri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1),* 28-37.

Scott, J. C. (1990).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Smith, T. W., & Gallo, L. C. (1999). Hostility and cardiovascular reactivity during marital interaction. *Psychosomatic Medicine, 61*, 436 -445.

원고접수일 : 2007. 04. 30.
게재결정일 : 2007. 12. 2.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8, Vol. 27, No. 1, 69-84

Anger Ex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Relation to Perceptions of Social Rank and External Entrapment in Married Couples

Jung-Hye Kwon **So-Young Lee**

Korea University Marital Counseling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ole of perceptions of social rank and external entrapment on anger and anger expression on marital satisfaction. One hundred and one married coupl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were asked to report how they would respond to a hypothetical situation (after reading an angry script) and fill out questionnair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wives and husbands in the induced anger after reading the script, anger-control, and marital dissatisfaction,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m in perceived social rank and external entrapment. For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the actor and partner effect, for external entrapment of both spouses, was significant, but only the partner effect for the wives' perceived social rank, the actor effect for the husbands' anger-out,and the actor effect for the wives' anger-in were significant.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demonstrated that the husbands' external entrapment affected their marital dissatisfaction directly and indirectly by their anger-out. The wives' external entrapment affected their marital dissatisfaction directly and indirectly mediated by their anger-in. In addition, the wives' perceived social rank affected their spouses' marital dissatisfaction, and the husbands' marital dissatisfaction affected the wives' marital dissatisfaction.

Key words : marital satisfaction, perceived social rank, external entrapment, anger-out, anger-in

www.kci.go.kr